

##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 설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시고 교직원, 학생들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설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시고 교직원, 학생들을 축하하시였다.

영접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학원책임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원아들이 설명절을 어떻게 쇠고 있는지 보고싶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며 활영대로 향하시였다.

순간 경애하는 어버이를 기다리며 활영대에 서있던 교직원, 학생들은 하늘 끝을 뒤흔드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폭청껏 터쳐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교직원, 학생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흐르는 눈물을 걸잡지 못하는 원아들의 호느낌소리가 학원구내에 차넘쳤었다.

옮기시던 걸음을 거듭 멈춰세우시고 원아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먼저 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돌아보시였다.

항일전의 군복을 입으시고 거연히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오래도록 바라보신 최고령도자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에는 백두산3대 장군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

### 설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축하하시였다

게 어려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원아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혁명의 물결으로 키우시기 위해 크나큰 관심을 돌리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학원에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더 잘 보셔주어 수령님과 장군님을 그리워하는 원아들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혁명 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학원개원식에서 축하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1997년 새해의 첫아침 눈보라를 헤치시며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어버이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을 담은 사진자료들을 비롯한 귀중한 사적물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보시던 최고령도자께서는 학원원아들의 제복앞에 서시여 소매에 붉은 줄을 떠운 것은 정말 많은 뜻을 담고 있다고, 원아들이 거기에 어려있는 백두산원인들의 숭고한 혈원을 잊지 말아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은정속에 현대적인 교육환경과 학교육설비들을 훌륭히 갖춘 여러 강의실들과 실험실들을 돌아보시면서 학원의 교육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해하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들이 지난 기간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안고 인민군대와 사회의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는

유능한 혁명의 지휘골간들을 많이 키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전국프로그램연에 서 우승한 학생들의 성과자료도 기쁨속에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학생들의 침실과 식당, 소년단실, 청년동맹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원아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학원에서 공부하실 때 친히 편집하신 벽보와 학원창립 60돐을 맞으며 발행한 화첩도 하나하나 주의깊게 보아주시였다.

원아들이 리용하는 침대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어버이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면서 추운 겨울에도 뜨뜻이 지낼수 있게 온도보장을 더 잘해 주라고 당부하시였다.

식당에 들리시여 설명절음식인 온반을 맛있게 먹고 있는 원아들의 밥그릇을 만져보시며 더운가도 알아보신 최고령도자께서는 맛있는가, 무엇을 먹고 싶은가를 다정히 물어주시고나서 국수를 좋아한다는 원아의 응석어린 말에 웃으시며 떡도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전자도서실을 돌아보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컴퓨터를 다루는 학생들의 모습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맘은 어떻게 험경되였는가고 물어주시고 필요한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회관에 들리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원아들이 리용하는 의자에 앉으시여 잘 꾸렸다

주어 푸짐하게 끓여먹이자고, 일군들이 내려와 원아들이 먹는 모습을 꼭 보아주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생일방에 들리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생일을 치러주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만족해하시면서 아이들은 생일날이면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제일 먼저 한다고, 학원일군들이 원아들의 부모구슬을 잘해 그들의 마음에 자그마한 그늘도 없게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어둠이 깃든 구내길을 걸으시며 운동장에 무슨 잔디를 깔았는가를 알아보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좋은 잔디를 보내주겠다고 하시였고 애외 통구장과 배구장에는 경기장용 고무깔판을 깔아주자고 은정어린 말씀을 하시였다.

시간이 가더라도 다 돌아보자고 하시며 체육관에 들어서신 최고령도자께서는 바닥을 순으로 쓸어보시며 원아들이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상하지 않도록 예쁘게 잘 다듬어주라고, 체육관을 번듯하게 더 잘 꾸려주자고 하시면서 설계일군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전자도서실을 돌아보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컴퓨터를 다루는 학생들의 모습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맘은 어떻게 험경되였는가고 물어주시고 필요한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 조선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제671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대련합부대 지휘부에 도착하시자 꿈결에도 그리운 최고령도자를 기다리며 활영대에 서있던 장병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의 우렁찬 함성이 천지를 진감하며 울려퍼지였다.

영접보고를 받으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장병들에게 답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대련합부대에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통한 교양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부대의 임무수행 정형을 료해하신 다음 군사강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의 훈련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대련합부대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전법을 깊이 연구하고 구현할수 있게 군사강실들을 훈련하고 훈련을 실속있게 벌리므로써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을 현대전의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능숙히 조직지휘할수 있는 높은 전투임무를 소유한 만능의 지휘관들로 준비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대련합부대 직속중대를 돌아보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훈련실에서 진행하는 군인들의 훈련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조선로동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훈련하고 있는 군인들을 고무격려하시였다.

그리시면서 모두가 훈련을 잘하여 월미도의 영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시였다.

교양실에 들어서신 최고령도자께서는 TV화면에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이 헌시된 것을 보시고 노래를 부르려고 켜놓은 것 같은데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이 함께 부르라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병사들이 리용하는 의자에 허물 없

이 앉으시여 3월까지 다 들어 주신 최고령도자께서는 노래반주기재의 조작을 잘하지 못해 점수가 평가되지 않은것이 아쉽다고 하시며 잘 부른다고, 점수가 평가되었으면 아마 100점이였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병실에 들리시여서는 온도계를 들여다보시며 온도를 알아보시였고 병사들이 덮고 자는 모포를 펼쳐드시고서는 절도 가능해보시면서 뜨뜻하고 푹신하여 모두가 좋아한다는 보고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였다.

병실에 들리시여서는 온도계를 들여다보시며 온도를 알아보시였고 병사들이 덮고 자는 모포를 펼쳐드시고서는 절도 가능해보시면서 뜨뜻하고 푹신하여 모두가 좋아한다는 보고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군인들속에 있는것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흘러간 시간은 아깝지 않다고 하시면서 식당, 콩창고를 비롯한 후방경리시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군인들속에 있는것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흘러간 시간은 아깝지 않다고 하시면서 식당, 콩창고를 비롯한 후방경리시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훈련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팀장군, 김진혁, 허명준, 량금철 비행사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훈련성과를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239호기를 돌아보시면서 모든 비행사들이 사회주의조국수호의 귀중한 전투기재인 비행기를 잘 관리하여 어느때든지 출격명령을 받으면 즉시 하늘로 날아오를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비행강당, 비행사들의 침실, 식당, 군인회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비행사들의 훈련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비행강당의 현관에 써붙인 어버이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식판을 오래도록 보시며 현지지도날자가 1월 17일이면 3일전이라고, 그날에 왔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군인들이 창작한 소묘작품들도 보아주시며 전문창작가들 못지 않다고, 인민군대에는 재간등이들이 많고 미술창작가후비들이 많다고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비행사침실에 들리신 최고령도자께서는 격정의 눈물을 터치며 풀에 안기는 비행사들을 뜨겁게 포옹해주시며 자신께서도 보고싶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식당에 들리시여서는 비행사들이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가, 물고기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빠다는 정상적으로 먹이는가도 물어주시면서 비행사들은 정신육체적으로 부담이 크기때문에 잘 먹여야 한다고, 비행사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지성을 담아 삼가 올린 60kg이상이나 되는 화려어를 싣고 오신 최고령도자께서는 물소료리방법도 알려주시면서 비행사들에게 맛을 보이라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군인회관에 들어서시여서는 이곳 군부대에서 복무한 들꽃소녀 김명희에 대해 회고해주시였으며 휴양소에서 어버이장군님을 만나뵈었던 흥태식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 직속중대를 돌아보시면서 병사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중대를 떠나실 때에는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에게 중대군인들의 만행, 만누이, 혁명전우가 되여 그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라고, 동무들에게 병사들을 말긴다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 군인들이 싸움준비에 더 큰 비약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의 푸른 하늘을 목숨바쳐 사수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오중흡7련대침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3870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격정에 겨워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인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부대의 임무수행과 훈련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군부대장병들이 고도의 혁명적정각성을 가지고 경계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부대에서 작전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지휘관들을 현대전의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능숙히 조직지휘 할수 있는 높은 작전전투조직과 지휘능력을 갖춘 지휘관들로 준비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는데 나서는 파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군인회관, 식당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세심히 살펴주시였다.

도서관에 들리신 최고령도자께서는 책장에서 소설책을 뽑아보시면서 펠독도서들은 다 받았는가, 독서는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물어주시였고 감상록도 한장한장 번져보시며 영화나 책을 본 다음에는 꼭 감상문을 써야 한다고, 그래야 문예작품에 담겨진 내용을 자기것으로 만들수 있으며 풍부한 문학적소양을 갖출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인회관에 들어서시여서는 이곳 군부대에서 복무한 들꽃소녀 김명희에 대해 회고해주시였으며 휴양소에서 어버이장군님을 만나뵈었던 흥태식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 직속중대를 돌아보시면서 병사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중대를 떠나실 때에는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에게 중대군인들의 만행, 만누이, 혁명전우가 되여 그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라고, 동무들에게 병사들을 말긴다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 군인들이 싸움준비에 더 큰 비약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의 푸른 하늘을 목숨바쳐 사수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일일창고에 들어서여서는 여러가지 절임들과 말린나물 등을 보시고 부식물이 많다고, 이 군부대는 자체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잘사는 부대라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병영의 구내를 거닐시며 부대군인들이 선군시대 혁명군인문화의 창조자들답게 병영과 주변들을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훌륭히 꾸렸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대안에는 지휘관들은 전사들을 친동생같이 사랑하며 전사들은 지휘관들을 만행, 만누이와 같이 따르고 서로돕고 이끄는 혁명적전우애의 기풍이 나날이 더욱 활짝 풋펴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인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풍모이라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공장에서 새로 만든 현대적인 기계들을 보아주시면서 구조와 성능, 기술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해하시였다.

공장에서 최첨단 딤판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짧은 기간에 강성국가건설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기계를 만들어낸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새로 만든 기계는 종전의 설비에 비해 성능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다고 하시면서 우리식의 현대적인 기계제품을 제작해낸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현대적인 기계가 정말 멋있다고, 마음 먹고 달라붙으니 훌륭한 설비가 제작되

였다고 하시면서 어버이 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대단히 만족해 하시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지난 시기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을 수시로 찾아주시였다고 하시면서 현지지도 회수만 놓고보아도 이 기업소에 대한 장군님의 애착이 얼마나 크시였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기계들을 얼마나 종시하시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에 오실 때마다 늘 정신이 번쩍 든다고 말씀하신 하시였는데 자신께서도 꼭 같은 심정이라고, 오늘 공장을 돌아보며 새 기계들을 보니 쌓았던 피로가 다 풀린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동무들이 이룩한 성과를 장군님께 꼭 보고드리겠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새

기계제품들을 보신 다음 공장앞에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공장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현대적인 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새 기계들을 양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시제품을 내놓고 자랑하는 것보다 그것을 지표별로 많이 만들어내며 하나를 제작해도 실속 있게 잘 만들어 현실에서 은을 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공장의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이 어버이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더 많은 현대적인 기계제품을 만들어낼 것을 결심했는데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높이 세운 생산목표를 달성하면 우리

제 장군님의 영전을 찾아가 승리의 보고, 충정의 보고를 드리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기업소의 여유로움을 돌아보시면서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 정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면서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공장의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생산에 앞서 그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래일은 설명절인데 로동자들에게 무엇을 공급해주는가, 종업원은 몇 명인가를 물어주시고 공장로 계급이 만든 현대적인 새 기계제품을 만족하게 보았는데 그냥 가자나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물고기 500t를 보내주겠으니 명절을 맞는 종업원들에게 공급해 주라고 뜨

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공장에서 자체로 건설하고 있는 강성원을 돌아보시면서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공장에서 수영장, 목욕탕 등 각종 문화 및 체육 시설들과 편의 시설들을 갖춘 부지 면적이 1만 m<sup>2</sup>이고 건축 면적이 3,400 m<sup>2</sup>인 강성원을 건설하고 있는데 대하여 뜻깊은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강성원 건설에서 제일 힘든 내부 공사가 남았는데 이 문제를 자신께서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에서 가장 힘있고 건설경험이 많은 부대를 이 공장에 파견하여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강성원 건설을 최단기간안에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끝낼 데 대한 과업을 동행한 인민군대 지휘성원들에게 주시였다.

본사기자

## 조선의 영광, 민족의 대행운

### 자주정치의 거장

위대한 인간이 시대를 대표하는 기적을 창조한다.

공화국의 국력을 만방에 펼친 인공지구 위성 발사, 새 세기 산업 혁명의 포성-CNC 공업화, 자립의 무쇠기동을 담보하는 주체 철생 산체계, 경공업 발전을 추동하는 비날론의 대경사, 풍요한 가을을 안아주 주체비료 폭포, 국산화의 활로 따라 전진하는 마그네 사크링카 공업, 조선의 속도로 솟아오른 희천의 업체들, 강성국가 리거리를 만들고 21세기 표본 살림집들…

공화국의 기적과 다계 단사변들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력도, 자주정치의 위대한 결실이다.

자주, 이 말속에 오늘도 희세의 정치원으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력도의 비범성이 함축되어 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공화국처럼 자주로 종업 높이고 자립으로 위력하며 자위로 강성번영하는 나라는 없다.

장장 수십 성상 위대한 자주정치로 승리를 펼치시고 민족 만대의 번영을 위한 굳건한 담보를 마련하신 것은 역사에 길이 빛날 장군님의 영원 불멸할 업적이다.

일찌기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에는 어

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남아이에 어 끼게 하든 우리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주거나 살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사생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선군의 길을 변함 없이 걸어나가야 수령님의 명원대로 인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고 강성대국 건설도 앞당길 수 있다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에는 백두산 장군의 자주적의 신념이 힘차게 맹박 치고 있는 것이다.

남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역경 속에서 선군의 기치 높이 강성국가 건설의 용대한 목표를 세워하고 그 실현을 위해 대고조 열풍을 지피시며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치신 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도 초강도 강행군으로 주체 100년의 총공세를 현명하게 이끄시여 온 나라에 대비역, 대혁신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50여 성상을 헤아리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자주정치의 본보기이다.

공화국에서 지난 세기 90년대는 자주적 민족의 존엄을 지키느냐 아니면 식민지에로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전연시기였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련합세력이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던 줄 염한 그 시기 총대우에 민족자주위업의 승리가 있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심장으로 절감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시였다.

피눈물의 해 주체 83(1994)년이 다 저물어가던 어느 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사적장을 찾으셨다.

사적좌지에 놓여 있는 만탄창된 기관총과 자동보총을 근엄하신 암색으로 일렬하신 그이께서는 자동보총을 틀어 잡으시고 목표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기시였다. 멀찍이 불줄기가 번개마냥 뻗어나갔다. 령이어 기관총을 틀어쥐신 장군님께서는 만탄창을 다 풀어 두 번째 목표도 목사발내시였다.

장군님의 안광에 섬광이 번뜩이고 있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위업을 완수하는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음을 선군령의 정의의 각오, 조국수호의 의지가 빛 발쳤다.

강철의 신념과 필승의 력관을 지니신 그이의 선군정정은 초도와 판문점, 오성산을 비롯한 조국방선의 최전연으로 부터 강성과 농촌을 비롯한 온 나라의 경제 전선으로 이어졌다.

몇 해 전 4월 어느 날이였다. 만난 시

련을 헤쳐온 선군길을 더듬으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계속하는 한 우리 민족은 자주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며 강성대국을 일떠세워 남부 러지 않게 잘 살게 될 것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업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확인 하시였다.

선군을 헤여야 멎겠다고 당당하게 살거나 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사생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선군의 길을 변함 없이 걸어나가야 수령님의 명원대로 인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고 강성대국 건설도 앞당길 수 있다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에는 백두산 장군의 자주적의 신념이 힘차게 맹박 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천출 위인인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생전에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조국을 헤여야 멎겠다고 당당하게 살거나 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사생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선군의 길을 변함 없이 걸어나가야 수령님의 명원대로 인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고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치신 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도 초강도 강행군으로 주체 100년의 총공세를 현명하게 이끄시여 온 나라에 대비역, 대혁신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 일체를 이룬 불

례의 정치 사상 강국, 그 어떤 외세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혁보 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경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은 장군님의 력도에 따라 우리 인민이 걸어온 자주의 길, 선군의 길이 얼마나 정당한 길이었는가를 시대 앞에, 세계 앞에 힘 있게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장군님의 자주정치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아래 조국통일의 문을 여는 6.15 통일 시대를 열어놓았다.

조국통일 위업 실현에서 자주의 대를 확고히 세우시고 민족 주체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 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장군님에 의해 철저한 민족 자주선언인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 선언이 마련되어 통일의 길에 전환적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열렬한 조국에 와 민족에로 일관된 장군님의 자주정치에 의해 북파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정견 차이를 초월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세운 장군님께서는 만탄창을 다 풀어 두 번째 목표도 목사발내시였다.

장군님의 안광에 섬광이 번뜩이고 있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위업을 완수하는 한 우리 민족은 자주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며 강성대국을 일떠세워 남부 러지 않게 잘 살게 될 것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업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확인 하시였다.

선군을 헤여야 멎겠다고 당당하게 살거나 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사생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선군의 길을 변함 없이 걸어나가야 수령님의 명원대로 인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고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치신 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도 초강도 강행군으로 주체 100년의 총공세를 현명하게 이끄시여 온 나라에 대비역, 대혁신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를 높이 모신다. 그의 력도 따위는 행운이 아닐 것이다.

조국에 찾아와 위대한 장군님을 추모하는 행사를 참가하기 위하여 조국으로 달려왔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다라는 것과 같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궁지 놓은 민족으로, 우리 조국을 정치에서도 제일 그리고 군사에서도 유통인 강국으로 일떠세워 주시였으며 조국인민들은 밤새 희ನ을 쓸고 살고 있다.

하늘의 희노를 품고 있는 조국동포들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야 믿을 수 없었던 이 사실이 꿈아닌 현실임을 알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세계가 공



우리 겨레가 얼마나 위대한 절세 위인들을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다.

### 조국의 참모습을 보았다

았다. 이역의 하늘 밑에서 남 모르는 고충도 안고하는 날이었다.

산천 초목도  
퍼눈물에 몸  
부림치던 지  
난해 12월,  
나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추모하는 행

사에서 참가하기 위하여 조국

으로 달려왔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다라는 것과 같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궁지 놓은 민족으로, 우리 조국을 정치에서도 제일 그리고 군사에서도 유통인 강국으로 일떠세워 주시였으며 조국인민들은 밤새 희노를 쓸고 살고 있다.

하늘의 희노를 품고 있는 조국동포들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야 믿을 수 없었던 이 사실이 꿈아닌 현실임을 알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세계가 공

인하는 탁월한 력도자이

시였고 우리 해외 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

다. 장군님과 영결하는 것이 너 무도 슬퍼 하늘도 하염없이 눈물의 흐느낌을 퍼붓고 있는데 그이를 편하게 모시겠다고 조국인민들은 밤새 희노를 쓸고 살고 있다.

장군님과 영결하는 것이 너 무도 슬퍼 하늘도 하염없이 눈물의 흐느낌을 퍼붓고 있는데 그이를 편하게 모시겠다고 조국인민들은 밤새 희노를 쓸고 살고 있다.

장군님과 영결하는 것이 너 무도 슬퍼 하늘도 하염없이 눈물의 흐느낌을 퍼붓고 있는데 그이를 편하게 모시겠다고 조국인민들은 밤새 희노를 쓸고 살고 있다.

장군님과 영결하는 것이 너 무도 슬퍼 하늘도 하염없이 눈물의 흐느낌을 퍼붓고 있는데 그이를 편하게 모시겠다고 조국인민들은 밤새 희노를 쓸고 살고 있다.

장군님과 영결하는 것이 너 무도 슬퍼 하늘도 하염없이 눈물의 흐느낌을 퍼붓고 있는데 그이를 편하게 모시겠다고 조국인민들은 밤새 희노를 쓸고 살고 있다.

장군님과 영결하는 것이 너 무도 슬퍼 하늘도 하염없이 눈물의 흐느낌을 퍼붓고 있는데 그이를 편하게 모시겠다고 조국인민들은 밤새 희노를 쓸고 살고 있다.

장군님과 영결하는 것이 너 무도 슬퍼 하늘도 하염없이 눈물의 흐느낌을 퍼붓고 있는데 그이를 편하게 모시겠다고 조국인민들은 밤새 희노를 쓸고 살고 있다.

장군님과 영결하는 것이 너 무도 슬퍼 하늘도 하염없이 눈물의 흐느낌을 퍼붓고 있는데 그이를 편하게 모시겠다고 조국인민들은 밤새 희노를 쓸고 살고 있다.

장군님과 영결하는 것이 너 무도 슬퍼 하늘도 하염없이 눈물의 흐느낌을 퍼붓고 있는데 그이를 편하게 모시겠다고 조국인민들은 밤새 희노를 쓸고 살고 있다.

장군님과 영결하는 것이 너 무도 슬퍼 하늘도 하염없이 눈물의 흐느낌을 퍼붓고 있는데 그이를 편하게 모시겠다고 조국인민들은 밤새 희노를 쓸고 살고 있다.

장군님과 영결하는 것이 너 무도 슬퍼 하늘도 하염없이 눈물의 흐느낌을 퍼붓고 있는데 그이를 편하게 모시겠다고 조국인민들은 밤새 희노를 쓸고 살고 있다.

# 평화수호는 통일위업실현의 근본담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력사적 인 1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행하여 평화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자면 내외호전평들의 전쟁책 등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평화수호는 통일위업실현의 근본 담보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나라의 통일,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평화는 온 민족의 한결 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학시적인 전쟁위험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 것은 우리 민족뿐 아니라 전세계인민들의 한결 같은 염원이다.

평화는 민족발전과 번영의 필수적 전제이다.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 자주적 운명개척에 대해 말할 수 없고 민족의 안전도 담보될 수 없다. 평화없이 통일이 있을 수 없으며 민족공동의 번영도 생각할 수 없다.

평화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민족들의 학회와 단합, 통일을 위한 사업들 이 적극 추진되고 광고될 수 있으 며 그것이 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

지 할 수 있다.

평화수호는 우리 겨레에게 맡겨진 과제이다.

조국통일의 주체가 전체 조선민족 이들이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해야 할 당사자로 다름 아닌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조선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외세는 동족대결을 격파시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참화를 입을 것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고 우리 강 토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삼천리 강토가 내외호전세

력의 침략한 전쟁마당으로 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그러나 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우리 겨레의 미리우에는 여전히 전쟁의 견은 구름이 무겁게 떠돌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 야망을 실현할 속심 밑에 남조선전역에 군사기지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무력을 증강하는 한편 북침 전쟁도발책 등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신형땅크와 전 투기를 비롯한 살인전쟁 장비들을 남조선에 또다시 증강해 치하였다. 미

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화》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면서 《평화옹호자》로 자처해왔다. 하지만 그것은 한갓 저들의 침략적이며 략 탈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음흉한 변장을 벗어나지 않는다.

남조선호전평들도 새해벽두부터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대결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남조선국방부는 새년도 《업무보 고서》라는 데서 그 누구의 《도발위 협》을 떠들며 《도한호 응징》이니 《도발원점에 대한 타격》이니 뛰어 하는 따위의 모험적인 전쟁교

리를 력설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정치군사적도발로서 악화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대결경으로 몰아가는 매우 위험한 대결선동이다.

이미 남조선호전세력은 민족의 대 국상기간에 조의표시는 고사하고 슬픔과 비애에 잠겨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내대는 천추에 용납 못할 대죄악을 저질렀다. 민족앞에 사죄는 커녕 오히려 북침 전쟁소동에 미쳐날뛰는 리명박여적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당동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

내고 있다.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국악한 전쟁왕신자들이 남조선에 있는 한 조선반도의 평화는 언제 가도 실현 될 수 없다.

온 민족이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모한 군사적도발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책 등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려야 한다.

반전평화수호투쟁은 침략자들과의 대결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정의의 투쟁인 동시에 우리 민족이 창조한 모든 정신물질적 재부를 지키는 애국애족의 투쟁이다.

내외호전세력의 군사적결탁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이며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장에 물인 미군을 남조선

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오늘의 투쟁은 새로운 주체 100년 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애국투쟁이다.

해내외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반전평화투쟁을 보다 거족적으로 벌려나갈 때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날은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신기록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도 근 60년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조선반도에는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조선반도에서 짚어 가는 전쟁의 견은 구름에 의해 평화가 시시각각 위협당하고 있는 심각한 사태가 조성된 근본원인은 바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에 있다.

남조선은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장에 물이다.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국제법적 견지에서 보나 국제적 판례로 보나 불법무도한 행위이다.

미국은 일제가 폐망한 후 아시아에서 저들의 지배권 확장과 리익을 위해 일본군의 《만장해》를 구실로 남조선에 미군을 끌어밀었다.

저들 스스로가 《해방자》의 탈을 뒤집어썼지만 남조선에 침략의 군화발을 내디딘 미군은 바다를 건너온 불청객에 불과했다.

조선전쟁이 끝난 후에도 유독 미군만이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 데 대한 정전협정의 요구를 무시하고 남쪽땅에 전쟁의 균원으로 계속 남아있다.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 회의에서 남조선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시킬 때 대한 결의가 채택되었지만 미국은 그

의를 수립년이 지나도록 리행하지 않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네원에 정면도전하고 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 민족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주었다.

오늘도 우리 민족의 피를 흘리게 하는 로근리집단학살 사건, 동두천녀인식발사 사건, 윤금이 살해사건, 두 너중학

여 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오늘날 미국의 처지를 놓고 볼 때에도 당연한 일이다.

《세계의 경찰》임을 자처하며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만을 일삼아온 미국이 오늘에 와서는 막대한 군사비지출과 끝이 없는 경제침체의 후파로 하여 더는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있다.

지금 남조선 보수 매당은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느니 뛰어 하는 나발을 불어대는가 하면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로 상전에 설겨버리는 미군주둔비를 더 올려서라도 남조선 강점 미군을 계속 유지할 흥제까지 꾸미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시대와 역사의 흐름으로 보나 민족공동의 요구로 보나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온 겨레는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장에 물인 남조선 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민족의 평화번영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김진혁

## 전쟁책동을

##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 한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군사기지화정책과 북침 전쟁도발책 등을 날로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힘을 쏟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념원은 지금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 등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군사기지화정책과 북침 전쟁도발책 등을 날로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힘을 쏟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념원은 지금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 등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군사기지화정책과 북침 전쟁도발책 등을 날로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힘을 쏟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념원은 지금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 등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군사기지화정책과 북침 전쟁도발책 등을 날로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힘을 쏟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념원은 지금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 등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군사기지화정책과 북침 전쟁도발책 등을 날로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힘을 쏟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념원은 지금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 등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군사기지화정책과 북침 전쟁도발책 등을 날로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힘을 쏟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념원은 지금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 등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군사기지화정책과 북침 전쟁도발책 등을 날로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힘을 쏟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념원은 지금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 등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군사기지화정책과 북침 전쟁도발책 등을 날로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힘을 쏟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념원은 지금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 등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군사기지화정책과 북침 전쟁도발책 등을 날로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힘을 쏟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념원은 지금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 등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군사기지화정책과 북침 전쟁도발책 등을 날로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힘을 쏟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념원은 지금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 등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군사기지화정책과 북침 전쟁도발책 등을 날로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힘을 쏟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념원은 지금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 등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군사기지화정책과 북침 전쟁도발책 등을 날로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힘을 쏟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념원은 지금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 등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군사기지화정책과 북침 전쟁도발책 등을 날로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힘을 쏟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념원은 지금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 등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군사기지화정책과 북침 전쟁도발책 등을 날로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힘을 쏟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념원은 지금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 등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군사기지화정책과 북침 전쟁도발책 등을 날로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힘을 쏟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념원은 지금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 등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군사기지화정책과 북침 전쟁도발책 등을 날로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힘을 쏟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념원은 지금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 등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군사기지화정책과 북침 전쟁도발책 등을 날로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힘을 쏟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념원은 지금 안팎의 반통일호전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 등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군사기지화정책과 북침 전쟁도발책 등을 날로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힘을 쏟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 파멸의 불길에 스스로 뛰여드는 전쟁부나비

내외호전광들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호전광들은 백령도와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 일대에서 수천발의 포탄을 쏘아대며 공화국을 반대하는 해상사격훈련을 광란적으로 감행하였다.

이어 호전세력들은 2월 말부터 《기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3월에는 《팀스 퍼리트》 합동군사연습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최대 규모의 해병대 연합상륙훈련(《쌍용》)을 벌릴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대화의 진정성》에 대하여 요란스레 떠들고 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대화와 조선반도 평화에 관심이 있다면 마땅히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일체 도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총포탄이 울부짖는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내외호전광들이 《대화》

대국 장기간 동족의 아픈 가슴에 칼질을 해온 리명박 《정권》의 사상 전례 없는 반인륜적, 반민족적 죄악으로 하여 죄악의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앞에 저지른 반인륜적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사죄의 말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에 광분하는 것은 실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반도의 군사적 대결이 제일 첨예한 곳이다.

공화국의 특지가 빤히 보이는 서해 5개 섬 일대에서 장시간에 걸쳐 수천발의 포탄을 쏘아낸 것은 그 누구의 《도발》을 구실로 이 지역에서 기어이 물리적 충돌의 불씨를 만들려고 하는 남조선호전광들의 불순한 기도이다.

3월에 벌리게 될 《쌍용》 훈련은 그에 따른 선행군사작전이며 시험전쟁이다.

실제로 이번에 동원될 미제3해병대기동군은 조선반도 《유사시》에 《작전계획 5027》에 의해 가장 먼저 전개되는 선두부대로서 남조선에서의 북침 합동군사연습 때마다 계속 참가해 왔다.

라격하기 위한 내외호전광들의 북침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공화국을 암살해보려는 그들의 범죄적 야망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에 내외호전광들은 저들의 전쟁연습에 대해 그 누구의 《도발》에 대처한 《방어》 훈련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번 전쟁연습들의 침략적 성격과 목적, 위험성을 가리우고 저들의 전쟁대결소동을 합리화하고 절령통치해보려는 매우 불순하고 도발적인 전쟁불장난 소동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어디 그뿐인가.

상륙작전은 철두철미 상대방에 대한 선제공격이다.

불의적인 선제타격으로 공화국을 기습하고 대규모 무력을 전개하여 전조선반도에 대한 지배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 것은 미국의 변함 없는 혼심이다.

3월에 벌리게 될 《쌍용》 훈련은 그에 따른 선행군사작전이며 시험전쟁이다.

실제로 이번에 동원될 미제3해병대기동군은 조선반도 《유사시》에 《작전계획 5027》에 의해 가장 먼저 전개되는 선두부대로서 남조선에서의 북침 합동군사연습 때마다 계속 참가해 왔다.

제반 사설들은 내외호전세력들이 이번에 강행한 해상사격훈련과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군사연습들이 도발과 선제공격, 전면전쟁으로 이어질 우려를 갖고 전쟁부나비를 헤아리고 절령통치해보려는 매우

불순하고 도발적인 전쟁불장난 소동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모한 전쟁연습소동은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의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평화적, 반인류적 행위로서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당국의 전쟁연습발표를 두고 《방어훈련이 아니라 공격 즉 침략훈련》, 《(한) 미 합동침략훈련은 모두에게 참화를 가져올 위험한 군사도발》로 규탄하며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적극 촉구해나가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동원될 미제3해병대기동군은 조선반도 《유사시》에 《작전계획 5027》에 의해 가장 먼저 전개되는 선두부대로서 남조선에서의 북침 합동군사연습 때마다 계속 참가해 왔다.

본사기자 김철호

남조선에서 런이어 터지는 보수집권세력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사회가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2008년에 있은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 자리를 놓고 몇백만원이 든 돈봉투가 오갔다는 《전당대회 돈봉투사건》이 미쳐 해명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외교통신부를 비롯한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저지른 일명 《다이아몬드사건》이 또 터진 것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종원선물 위원회는 깨메를 다이아몬드

산개발과 판련해 조종표 전 《국무총리》 실장, CNK의 오덕근 대표 등 관련자 6명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리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그 무슨 《경제 살리기》의 미명하에 《자원외교》를 대대적으로 펴들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사건은 《자원외교》의 탈을 쓰고 보수집권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감행한 특대부정부폐사건으로서 이 미전부터 그 소문은 사람들 속에 널리 퍼져 있었다. 굽은 종자는 언제든지 터진다고 그것이 이번에 터진 것이다.

주지하다 싶이 이번 사건의 주역으로 된 CNK는 주가가 3,000원도 되지 않는 그리 알리지지도 않은 자그마한 회사였다. 그런데 지난 2010년 12월 이 회사가 깨메통에서 다이아몬드산개발권을 획득했다는 외교통신부의 보도자료가 나가자 즉시 14.86%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초까지 무려 1만

6,000원으로까지 치솟았다. 이후 지난해 6월 28일 외교통신부가 이 회사에 대한 또 하나의 유리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주가는 지난 8월 경 1만 7,000원으로까지 치달았다. 이렇게 주가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미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많은 고위공무원들이 보유주식을 팔아 굉장한 돈벌이를 하였다. 말하자면 외교통신부가 자그마한 회사인 CNK를 위해 광고역할을 하고 그 기회에 보수집권세력들이 대대적으로 돈벌이를 한 것이 바로 2010년 당시 외교통신부 장관이었던 류명환의 딸의 《특혜제용》을 비롯하여 외교관들의 주제국 너성들과의 치정관계로 소문난 《상하이스케일》 등 이러한 부정부폐 행위들로 어론의 뜻매를 맞고 있는 외교통신부가 이번의 《다이아몬드케이트》를 계기로 《공직기강》을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은 행차뒤 나발이다.

이번에는 외교통신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부정부폐 행위가 드러났다면 래일은 리명박 《정권》의 어느 부, 쳐가 저지른 부정부폐 사건이 폭로될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다.

시 한탄이 터지듯 도처에서 터지는 리명박 《정권》의 부정부폐 행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멸만을 느끼게 하고 있다.

리명박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부정부폐로 완벽한 《정권》》으로 들릴 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 망하는 집안의 개싸움

은 거의가 리명박의 심복들이며 《한나라당》의 대표자들도 친리명박계가 장악하였다.

사냥이 끝나자 사냥개를

잡아먹는다고 권력을 쥐게 되자 친리명박파는 박근혜와 그의 심복들을 완전히 물아내다시피 하였던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 친박근혜파가 《미래희망련대》로 떨어져나온 것도 그래서였다.

실제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사람도 상당히 바뀔 것'이고 정책도 바뀔 것'이고 이후 분위기를 일신하는 면

서 설상가상인 것이다.

그나저나간에 《대통령탈당》 론은 계파간으로 그때문이다.

친리명박파가 《대통령탈당》을 위한 공천에 진입하게 되는 오늘의 시점에서 《대통령탈당》 론은 계파간 대립에서 《분당》 론으로 번져지고 《당명변경》, 《박근혜당》으로의 탈바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여론의 분석이다.

실제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사람도 상당히 바뀔 것'이고 정책도 바뀔 것'이고 이후 분위기를 일신하는 면

에서 당명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이 왕왕 울려나오고 있다.

더우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박근혜는 최근 어느 한 간단회에서 《꿈을 이루고자 살고 정치를 한다. 반드시 꿈을 이루어내겠다. 인생이 두번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때는 마음이 급하고 오로지 그 생각 하나》라고 자기의 강한 권력의지를 표현하였다 고 한다.

친리명박파가 《대통령탈당》 론은 《박근혜의 연출》이라고 떠들어대는 것도 그때문이다.

리명박이 《탈당》을 하든, 《한나라당》이 《분당》을 하든, 또 《재창당》을 하든간에 《대통령탈당》 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나라당》 내부의 아귀다툼은 《권력》이라는 고기덩이를 놓고 으르렁거리며 물고뜯는 개싸움의 연장에 불과하며 보수집권세력의 추악한 물끌을 고스란히 보여줄뿐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한나라당》이 《쇄신》의 미명하에 간판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겠다고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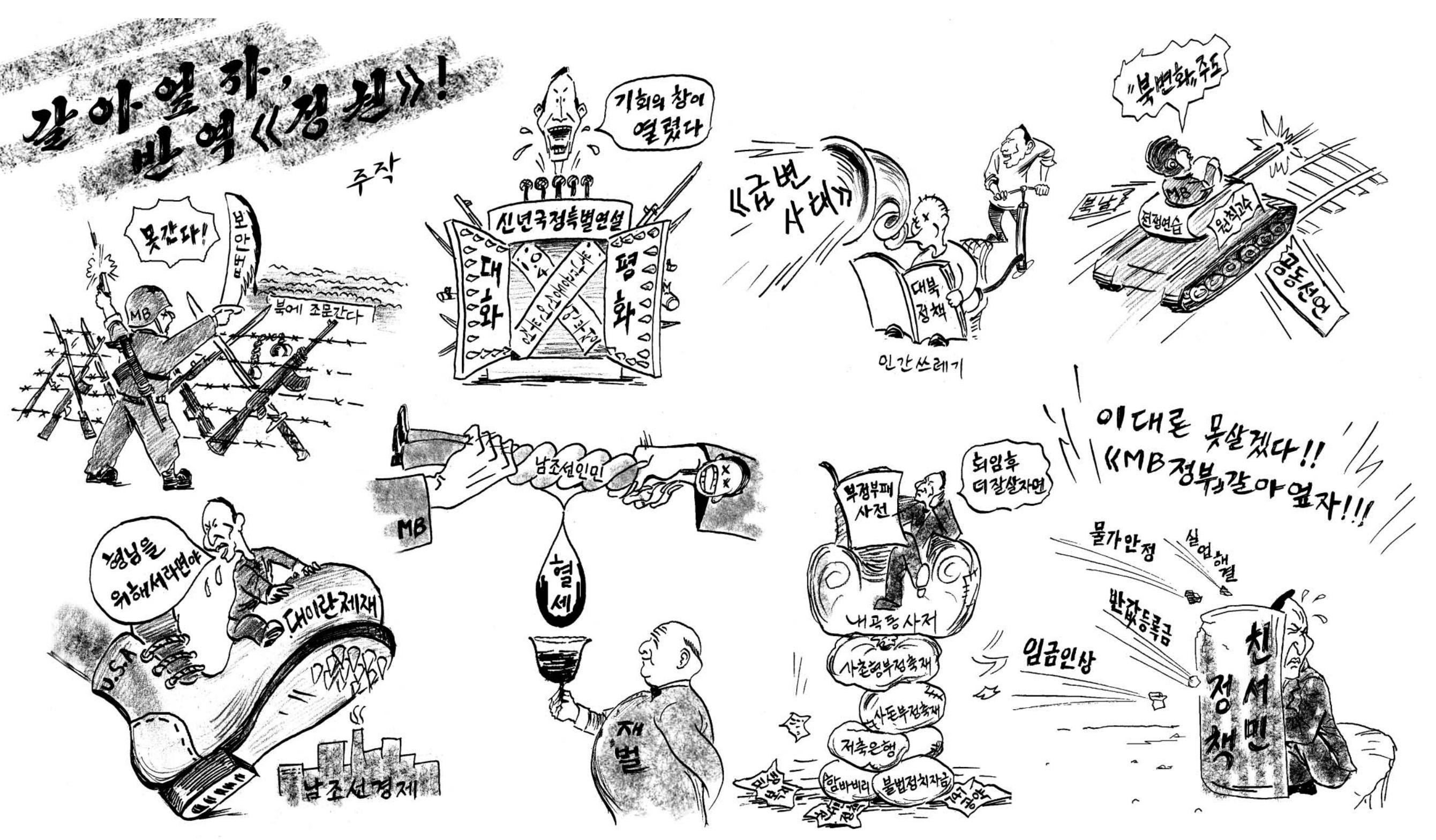
이러한 놀음을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확산되는 반 《한나라당》 감정과 지금의 간판을 들고서는 앞으로 있게 될 《총선》에서 꺼낼 수밖에 없다는 위기워치에 내부에 급속히 조장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그래서 고안 단평 쓸데 없는 짓

결국 《한나라당》은 오히려 수치스러운 오명을 더 얻게 되었다. 민심에 역행하여 온갖 못된 짓을 다한 반역당에 차례진 응당한 결과이다.

죽어 부스럼 만든다는 말이 있다. 《한나라당》은 남조선민심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는지 똑바로 알고 끌려없는 짓으로 더 큰 망신을 하기 전에 스스로 해산하는 것에 좋을 것이다.

주 광일



예년에 없이 눈이 자주 오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평양민속공원건설은 계속되고 있다.

먼 옛날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길 때 왕궁을 세웠던 대성산 안학궁터 주변에 건설되는 평양민속공원은 반만년에 달하는 겨례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후세에 길이 전할 목적으로 세우는 대로천력사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와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응대한 구상에 따라 건설되는 평양민속공원은 지금 자기의 뿐만 아니라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응대한 구상에 따라 건설되는 평양민족공원은 지금 자기의 뿐만 아니라

#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평양민속공원건설

을 끌어들이고 있다. 공원입구에 옹장하고 으리으리하게 건설되고 있는 정문을 지나면 곧게 벤은 포장도로를 따라 개선문과 주체사상탑이 서 있고 그 뒤로 조종의 산인 백두산과 정일봉이 장중하게 세워져 있다.

백두산자락아래 반만년의 역사사를 살아온 조선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 습기를 보여주듯 드넓은 부지에 각각 한 번대의 역사유적 유물들과 현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들

이 실물과 꽃같이 혹은 축소 모형으로 건설되고 있다.

평양민속공원은 혁사종합교양구, 혁사유적전시구, 현대구, 민속촌구와 민속놀이구, 백두산 및 금강산공원구역과 기타 경영관리구로 구성되어 있다.

공원의 입구에는 혁사종합교양직판이 설치되어 있어 반만년의 민족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혁사유적전시구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유적유물

들이 견설되고 있다. 원시인들의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그림판과 원시초락들로부터 시작하여 고조선시기의 단군릉, 고인돌무덤, 비파형단검, 고구려시기의 동명왕릉, 광개토왕릉비, 백제의 미륵사람, 신라의 황룡사람, 발해시기의 상경돌등, 고려시기의 왕건왕릉, 풍민왕릉의 문무관상, 경천사람, 리조시키의 죄우기, 표충비, 북판대첩비 등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혁사유적 유물을 수십여

개 대성이 현재 완성되었거나 설치중에 있다.

현대구에서 진행되는 일정한 축적의 백두산3대장군고향집 모형과 주체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 서해갑문,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천리마동상, 만수대예술극장 등의 건설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민속촌구에는 고대시기의 살림집들과 고구려시기의 판청과 무관, 문관집, 고려시기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성균관, 동명관, 99칸짜리집들이 원상그대로 일어서고 있다. 또한 발해궁전과 리조시키의 대표적인 살림집류형들이 세워지고 있다.

이밖에도 백두산, 금강산

을 비롯한 자연경관들이 공원안의 여러 곳에 펼쳐지고 있으며 민속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활쏘기, 씨름, 네뛰기, 그네뛰기, 육놀이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게 민속놀이 구가 홀륭히 꾸려지고 있다.

반만년의 오랜 혁사적기간에 우리 민족이 창조한 고상하고 문명한 혁사와 생활문화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특색있는 평양민속공원건설은 다른 건축물공사와 달리 혁사주의 적원칙과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공원으로서의 품위도 갖추어야 하는 품이 많이 들고 기술공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은 어려운 공사이다.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건설해도 먼 후날에도 순색이 없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현재 계획된 건축물들에 대한 풀조공사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며 내부공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머지 않아 홀륭하게 완공된 평양민속공원에서 사람들은 설명절을 비롯한 민속명절을 즐겁게 하게 될 것이다. 완공의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글: 본사기자 박금일

사진: "동장현"



고구려의 위용을 전하는

광개토왕릉비

광개토왕은 22년의 집권기간 국력을 강화하여 령도를 크게 넓히고 세나라통일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침략자를 여러차례 징벌하여 고구려를 동방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다. 봉비는 광개토왕의 이런 공적을 기록한 비석이다.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 있는 광개토왕릉비는 큰 통돌을 간결하게 다듬어 세우고 걸면에 약 1,800자의 비문을 새긴 보기 드문 돌기자이다.

모형은 혁사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나라뿐 아니라 동방혁사의 가장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로 되고 있는 광개토왕릉비의 현존상태를 그대로 재현하였다.

이끼낀 혁사를 재현하게

될 각이한 돌탑들

민속공원에는 각이한 혁사적시기의 돌탑유적 모형들이 수십개 세워지고 있다.

고구려시기의 금강사람,

## 각이한 시대의 혁사유적 유물 모형들

신라시기의 유명한 석탑들인 다보탑과 석가탑, 백제시기의 미륵사람, 고려건축조각 예술의 국보를 이루는 경천사립모형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유적모형들이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모형들은 실물과 1:1, 2:1의 비례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자그마한 부각장식으로부터 둘의 무늬에 이르기까지 유적의 모든 세부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민족의 습기를 전하는 거북선

거북선은 우리 선조들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부각장식으로부터 둘의 무늬에 이르기까지 유적의 우수성과 습기의 상

징으로 되고 있다. 현재 민속공원에서는 실물과 2:1크기의 거북선축소 모형이 제작되고 있다.

모형이라고 하지만 실제 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작과정에 애로가 적지 않다고 한다.

제작이 마감단계에 이른 모형은 웅장하고 위엄 있는 거북선의 독특한 모습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모형을 인공꽃우에 설치하여 출렁이는 물결과 떠 있는 거북선의 실지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계획이라고 한다.



## 온 나라를 선경으로

들을 일매지게 깔고 시내빼

스정류소들을 새롭게 단장하

여 거리의 면모가 일신되고

있다.

평양시에서는

경성국가

의 본보기 살림집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극장들이 새로

일떠서거나 현대화되었으며

김일성종합대학에 전자도서

관이 건설되었다.

대동강과 대동강식료공장,

삼일포투산물공장, 육류판

로리전문식당,

보통문거리고기상점,

보통강상점, 목란

비데오사 등 새 세기의 요구

에 맞는 문명하고 현대적인

생산 및 편의봉사건물들과

문화기지들이 수많이 일떠

섰다. 그런가하면 여러 구역

들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에 특성에 맞게 여리가지 색

같이 외장재를 바르거나 갖

가지 타일을 붙이며 결음길

들이 문양고운 색보도블록

이르는 곳마다에 사회주의 선경마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어제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사리원시 미륵리의 추리동네, 살구동네, 구장군 통철협동동장의 복승아나무동네, 파산군 초장리의 감나무동네, 정주시 상단리의 사파나무동...

참으로 류다른 정서를 자아내는 공화국의 산천도, 전야도, 마을도 한폭의 그림마냥 아름답게, 현대적으로 변모되어가고 있다.

온나라를 선경으로 만들자는 것이 새해에 들어서면서 공화국인민들이 다지는 애국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자기가 사는 고장과 일터에서 강성부홍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공화국인민들의 불타는 열의와 투쟁속에

나라의 면모는 경성국가의 체모에 맞게 나날이 변모되어가고 있다.

본사기자 리계명

## 국제 김일성기금 리사회 회의 진행

국제 김일성기금 리사회 회의가 지난해 10월과 12월 중국 양강파 아오먼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국제 김일성기금 회장 죠니 혼과 기금 성원들, 조선 사회과학자협회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기금 창설후

2012년 은하수

신년음악회 『태양

의 위업 영원히』

가 사람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고 있다.

새해 정초에

막을 연 음악회

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에 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경건한 추억과

그의 경모의 정에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종교전에 힘써나

서도록 고무족동하고

있다.

한 전체 조선민족과 진보적인 인류의 다함없는 흠토의 정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류자주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또한 절세의 위인들에 대

로 할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철저히贯彻하며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는 명작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2012년 은하수 신년음악회뿐 아니라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작들을 더 많이 소개하고 있다.

현악단의 창작대도와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주체적립장을 확고화하여 서서 조선음악의 본래를 살리며 강성국가의 체모에 맞는 더 많은 명작들을 창조할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와 같은 선군시대 인간들의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고 깊이 있게 담은 시대의 명작들을 많이 창조하여 주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예술의 높이는 그 나라, 그 민족의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 문명의 높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지금 시기 공화국에서는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와 같은 기념비적인 무대에 출작품들이 창조되고 군중에 숨어 있는 새로운 개화기가 펼쳐지는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졌다.

시대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의 미학정서적 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21세기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것을 새롭게 사고하고 새롭게 창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창작가, 예술인들은 은하수관



비약의 슴결이 약동하는 만수대지구 건설장



## 백두산의

## 이름에 대하여 (1)

백두산은 우리 민족사의 밀상지이며 우리 나라 강과 산의 시원으로 되는 조종의 산이다.

백두산이라는 산이름은 사철 회색의 부석파 장설을 머리에 이고 하얀 뼈부리를 창공놓아 아래로 솟구고 있는 숭엄한 자태와 경관에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산의 이름도 혁사의 흐름과 시대적 감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다.

이 산이 백두산으로 불리우기 전에는 시기마다 래백산, 분한산, 개마대산, 도래산 등으로 불리웠고 또한 백두산과 같은 시기이나 열마간 후시기에는 백산, 장백산으로 불리웠다.

백두산의 가장 이름 시기의 이름은 태백산(큰 흰 산)이었다.

13세기 고려의 스님 일연 (1206~1289년)이 쓴 『삼

국유사』에서 인용한 『고기』의 단군전설기록에는 단군의 아버지 황옹이 하늘세계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곳과 단군이 출생한 곳이 태백산이라고 했다. 일연은 이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해석했으나 그보다 앞선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시조 주동전설에서 암록수와 함께 보이는 태백산은 백두산 이었다고 한다.

태백산 다음으로 불리운 백두산의 이름은 불함산(밝은 산)이었다.

다른 나라의 오랜 역사책인 『산해경』(B.C. 3세기 이전에 편찬)에서는 『황폐한 대지에 큰 산이 있었는데 불함산이라 하였고 그곳에 속신국이 있었다.』고 하였다.

속신은 고조선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곧 불함산은 고조선의 산이었다.

그리고 불함산이라는 이름은 B.C. 3세기 이전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불리운 백두산의 이름은 개마대산(엎드린 말잔등 같은 산)이었다.

다른 나라의 역사책 『후한서』(5세기 사람 범엽 편찬)에서는 『동옥저는 고구려의 개마대 산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고구려에서 백두산을 개마대산으로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개마대산이라는 이름은 5세기 전에 쏘아온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개마대산 다음으로 불리운 백두산의 이름은 도래산(여러개 봉우리의 산)이었다.

다른 나라의 역사책 『위서』(북제사람 위수 편찬)에서는 『물길국(고구려 주민소국) 남쪽에 도래산이 있다.』고 하였다.

물길국은 고구려의 지배 하에 있었으며 남북조시기 북제(479~502년)는 5세기 말에 있던 국가였다.

따라서 도래산이라는 이름은 이미 5세기경에 불리우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에 출현한 것이 백두산이라는 이름이나 아니지 않았다.

그것은 대체로 7세기 월전 이전에 고구려에서 먼저 지어 불렀다고 인정한다.

다른 나라의 지리책인 『팔지지』(7세기 전반기 위왕태 편찬)에서 『말갈(고구려주민) 남쪽에 백산이 있다.』고 하였다.

공업경제단계에서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그것을 생산에 리용하여 거대한 재부를 창조하였으므로 사람들은 지식이 급격

히 물길국은 고구려의 지배 하에 있었으며 남북조시기 북제(479~502년)는 5세기 말에 있던 국가였다.

따라서 도래산이라는 이름은 이미 5세기경에 불리우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에 출현한 것이 백두산이라는 이름이나 아니지 않았다.

그것은 대체로 7세기 월전 이전에 고구려에서 먼저 지어 불렀다고 인정한다.

다른 나라의 지리책인 『팔지지』(7세기 전반기 위왕태 편찬)에서 『말갈(고구려주민) 남쪽에 백산이 있다.』고 하였다.

이보다 후의 책인 『통전』(8세기 말~9세기 초 편찬)에서 『마자수(압록강)는 동북쪽의 말갈 백산에서 흘러내린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백산은 곧 백두산의 다른 이름이다.

후보원사 교수 박사 박영해

쓰인 이름일 것이다.

고구려시조 주몽전설에서 는 백두산을 태백산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 건국(B.C. 277년) 이전에는 아직 백두산이라는 이름이나 아니지 않았다.

인류의 사회경제발전은 세 단계, 즉 농업경제(로동력경제)와 공업경제(자원경제), 지식경제(지능경제) 단계와 같은 경제발전단계를 거치고 있다.

경제의 지식화가 적극 추진됨으로써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지식의 진보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되었다. 지식은 생산력을 대표하고 지

비식은 각각 바다물, 거부기

밭침과 비름, 비머리로 이루

어졌다. 비름은 거무스레한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나

이는 다 회색화강암을 다듬

어 만든 것이다.

바다물은 넓직한 대들로

되어 있으며 거부기밭침은

10t이 넘는 통돌로 거부기조

각을 만들었다.

비머리는 합각지붕형식이

며 그 처마밑에는 각각 네

마리씩의 롱트립조각을 하

여 비석의 기념비성과 장식

성을 돋구어주고 있다. 비각

은 정면 4간, 측면 2간의 합

각집으로서 모루단청을 입혔

다. 표충비는 우리 선조들의

풍부한 예술재능과 발전된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본사기자

온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대 표적 실례이다.

들어오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바탕에는 『출구』로서의 상징성보다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서양사람들이 저절로 문이 열리는 것을 두려워

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선조들은 문이 저절로 열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들어오는 것의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립춘날 소원을 담은 글귀를 써서 대문에 붙인 『립춘방』은 대문으로 복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대 표적 실례이다.

조상을 잘 모셔 조상으로

리게 만든 리유도 거기에 있다.

받아들이기 쉽게, 밖에서 밀고 들어오기 쉽게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들어온 복은 잘 지켜야 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대문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는 각별히 조심해야 했다.

옛날에 마당쇠가 대문을 향하여 비질을 해나갔다가 복이 나간다고 해서 주인에게 혼이 났다는 말이 있다. 그러다보니 원을 그리며 안으로 쓰레기로 모아가는 비질풍경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본사기자

조선집 대문

부터 복을 받겠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전통적 사고였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두팔로 문을 가로 막으면 제수가 없다고 하였고

『문지방에 앉으면 복이 달아난다』는 속담도 여기로부터 출발된 것이다.

조선집 대문을 안으로 열

다고 한다.

례하면 아들이 없어 마음쓰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아들을 낳으라는 의미에서 『아들진』이라는 말을 하며 부여주었고 땅이 없어 썹석해하는 사람에게는 땅을 낳으라는 의미에서 『딸진』이라고 하며 부여주었다고 한다.

이처럼 마지막의 의미

가 여러 가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예로부터 형제들과 이웃간에 서로 화목하게 살며 자신보다 형제나 이웃의 복을 더 중하게 여겨온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20세기의 8대 발견

① 새처럼 나는 꿈을 실현한 라이트형제의 비행기 발견

② 소재혁명을 불러온 합성수지와 나이론의 발견

③ 전세계를 하나로 변모 시킨 TV의 발견

④ 우주과학을 한계단 높이 발전시킨 허블우주망원경의 발견

⑤ 푸른 곰팡이에서 찾아낸 폐니실린의 발견

⑥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발명

⑦ 핵에 의한 전기생산과

콤파터발명

⑧ 헤핵산(유전인자)의

선행2종구조해명

본사기자

그것은 조직의 편락선이었다.

불시에 형언 못할 불안감이 가슴을 유힐었다.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그들이

제각각이었다.

본사기자

그들이

제각각이었다.

본사기자